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51호
6월 22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땅끝까지 복음전파!” 사명감당 다짐

부흥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제주한마음교회에서

회장 김건수 목사 취임



김건수 목사
예하성 부흥사회 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6월 9일(주일) 저녁 7시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드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예하성 부흥사회 소속 임·회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날 예배에는 제주국동방송 제주지사장과 임원 및 제주기독교신문과 크리스천라이프 신문에서도 취입식 예배를 취재하는 등 제주기독교계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이날 1부 감사예배에서 전임 총회장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지도교문)는 갈 2: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사도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부흥사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김건수 목사(부흥사회 회장)가 김기진 목사(부흥사회 직전회장)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는 부흥사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어서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지도교문)는 김건수 목사에게 부흥사회 회장 취임 축하패를 전달하며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감당을 당부하고 그동안 임원으로 헌신해 온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축복했다.

행사를 마치고 제주한마음교회에서 준비한 다과와 만찬을 통해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성도들이 정성껏 담은 한라산 고사리장아찌 선물도 제공되었다.

이어서 부흥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신입회원 2명의 가입청원을 심사했고 앞으로 진행될 각종 집회와 행사계획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73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73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25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고시위원 김종현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창 45: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되어야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24년 8월 30일(금)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25년 2월 3일(월), 4일

(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본지 1251호 7면에 게재되는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산장려 대책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 22:17)



유봉수 목사
전임 총회장
교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한 번은 열 살의 외손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너도 커서 결혼해줘” 하고 물으니 외손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요”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할 말을 잊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애 있는 소리가 사라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문을 닫는 현실을 직시하며 10년 후 20년 후 국가의 큰 재앙이 오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국가 세금은 누구에게서 걷을 것이며 국방은 누가 지킬 것이며 산업의 일꾼은 어디서 채용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만 사회는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무

자식 상팔자가 아니라 무자식 국가 재앙인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의 무결혼, 무자식의 사고 방식을 바라보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이 창세기 9:7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해 살게하여 430년 만에 250만 가량의 인구로 번성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도 마

찬가지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사과나무도 심은 지 7년쯤 되면 50여 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숭아네 개도 한 번 출산에 7마리 새끼를 낳고 딱새도 6개의 알을 낳고 6마리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를 수백 마리 낳습니다. 결혼 않고 출산 않고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결혼 정책을 장려하여 남과 북, 동과 서 지역의 남녀가 결혼할 때 금전적 혜택, 주거 혜택, 교육 혜택 등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만한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은 재물 등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결혼하여 자식 낳고 기르는데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쫓아간 틸틸과 미틸은 결국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과 결혼하여 자식 낳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1:5에 아브라함이 백세에 사라는 90세 노년에 아들 이삭을 낳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순종하는 아들 이삭을 보며 기를 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기르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생을 바쳐 기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않고 자식을 낳아 길러보지 못한 사람은 자식으로 인한 행복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무력함에 빠지고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늦게 딸을 낳아 대학 보내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배려로 의학 전문대학원을 거쳐 의사 가운을 입는 날 딸과 포장마차에 앉아 잔치국수와 떡볶이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에 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결혼, 무자식은 인생이 부자유한 자입니다.

셋째로 출산 장려대책은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매스컴 그리고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작가 심훈의 상록수의 주인공 최영신은 무지와 가난에 찌든 농촌을 깨우치기 위해 처음 교회의 도움을 받아

마을회관을 지어 학교로 삼아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과 출산을 깨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불듯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출산장려가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음 중요한 곳이 학교입니다. 교사들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인생관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막 6:2에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곤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스컴의 역할입니다. 편파 보도도 비판받지 말고 초당적으로 신문, TV, 잡지 총동원하여 출산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구 감소로 인한 국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운동이 진정 애국하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아들 요셉이 세계 최강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오는 14년간 대궐을 수렴하여 전 7년 흉년 때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후 7년 흉년 때 대비하여 세계의 기근을 극복하고 만백성을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산장려대책을 국가 중요정책으로 세우고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국난을 이기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것입니다.



총회 기도회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는 정책위원(앞줄 좌에서 두번째 유봉수 목사)



조용목 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0~18)

그리스도인은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투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꾀계와 활동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꾀계으로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사상과 종교를 만들게 하고 이를 따르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도록 하려고 꾀하며 이단 사설로 복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교회를 없애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는 일을 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도록 작용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마귀의 꾀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날뛰고 온갖 꾀술로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고 하였습니다. 허리띠는 몸을 결박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몸을 자유롭고 힘 있게 활동하도록 해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흉배는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구리조각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슴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양심을 참소의 창칼로 공격합니다. 죄책감, 정의의식, 구원에 대한 불안으로 상처 나게 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로마 군사의 신발이 탁월

해서 편안하게 행군하고 전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요 14:27) 가 시발길, 험한 길에 많은 인생을 살면서 자칫하면 심령이 상하기 쉽습니다. 마귀는 이때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행진해야 합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에는 의심을 불 붙이는 화살이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막지 못하면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방패로써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리셨습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건강과 생명과 부요와 승리와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무디어지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기도하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개인기도, 합심기도, 목상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집중기도, 작정기도, 생활화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모든 기도로서 마귀의 꾀계를 능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교연 내방

송태섭 대표회장 등 임원들과 환담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취임 인사차 지난 5월 30일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해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임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전 수석은 “한국교회연합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데 감사드린다”며 “교계에 진출한 목소리를 들으려 왔다. 비판이라도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송태섭牧사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때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다”며 “한교연이 윤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부터 기도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 만큼 우리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극복해 나가실 줄 믿는다”라고 전했다.

상임회장 홍정자牧사는 “기독교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교가 없을 것이다. 그중 한교연은 매년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



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국가를 위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다. 상임회장 이영한 장로는 “평신도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눈치 보느라 정작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옳은 일이라면 담대히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무총장 최귀수牧사는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에 좀 더 애써줄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 정책중에 좋고 긍정적인 것들도 많은데 자주 부정적인 단면만 보여지는 것같아 안타깝다. 긍정적인 면이 더 자주 더 많이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수석은 “국가와 정부가 여러 위기 가운데 있다. 국민들과 함께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계가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대표회장 송태섭牧사는 전광삼 수석을 위해 기도했다.

전광삼 수석의 한교연 방문엔 시민사회수석실 정호성 비서관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연에선 송 대표회장 외에 상임회장 홍정자牧사와 이영한 장로, 회계 안중수 장로, 사무총장 최귀수牧사가 배석했다.

세기총, 미동북부 회장단 취임식

지회장 임명식도 갖고 7대사역 선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6월 6일(목) 오후 7시(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 밀알선교단 메인홀에서 '미동북부 회장단 취임식 및 지회장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난 1월 미동북부 회장에 임명된 김태수 목사를 비롯해서 수석부회장에 차수열 목사 등이 임명되었으며 △뉴욕 지회장에 박준열 목사 △뉴저지 지회장에 육민호 목사 △커네티컷 지회장에 황현호 목사 △메릴랜드 지회장에 정병해 목사 △워싱턴 DC 지회장에 김재학 목사 △필라델피아 지회장에 김경현 목사 등 6명이 임명을 받았다.

박준열 목사(뉴욕지회장, 선한목자교회)의 사회로 드린 감사예배는 김재학 목사(워싱턴DC지회장, 예수마음교회)의 대표기도, 송호민 목사(미동북부 사업기획관리본부장)의 성경봉독, 뉴저지사모함정단(회장 유연옥



사모, 지휘 김미라 사모, 반주 아예실 사모)의 특별찬양에 이어 장석진 목사(세기총 제2대 대표회장)의 '너는 이렇게 하라' (행 1:1-11)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어 테너 황진호 단장(미동북부 기독교 음악부흥단)의 봉헌찬양, 육민호 목사(뉴저지

지회장)의 봉헌기도, 정인식 목사(미동북부 사무처장)의 광고 후 김중언 목사(뉴욕플러싱메일교회 원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미동북부 회장단 취임식에는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인사말을 전했다.

야외 ‘종교 건축’ 작품들 설치 전시

한남대 캠퍼스에 건축학과 학생들 교회 신앙 공유

한남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건축학과 학생들이 만들어 낸 이색 ‘종교 건축’ 작품들이 설치돼 눈길을 끈다.

6월 10일(월) 한남대에 따르면 건축학과 2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종교건축’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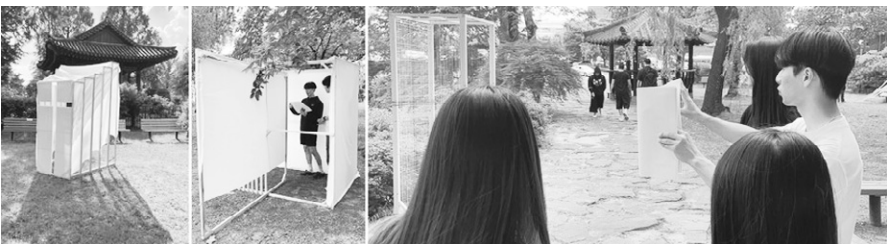
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오정못과 선교사촌 곳곳에 ‘1인기도실·개인성소·장소의 탐구’를 주제로 한 건축물들이 전시된다.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치한 제작물들은 학

교 캠퍼스와 어울려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종교 건축에 대한 연구는 ‘교회’라는 큰 규모의 공간에 이뤄지게 된다. 학생들은 각기 다른 개성에 따라 기도실을 제작했으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물 관련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도교수인 정미라 최상아 교수는 “이번 전시회가 건축과 학생은 물론 한남대 학생들이 건축학과 동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개혁신울 창립총회

신임 총회장에 김영신 목사, 12개 노회, 230여명 합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신울)는 지난 6월 6일(목) 충남 서천에 위치한 서천 유스호텔(원장 황형식 목사)에서 제108차 36회기 제1차 임시 성총회를 열고, 공식 교단 출범과 함께 총회장에 김영신 목사(광명일직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모인 교단 회원들은 본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소속이었으나, 올 초 총회 임원진이 무리하게 타 교단과 통합을 추진하자, 반대 끝에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총회를 탈퇴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교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신 목사)가 구성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최소 1년 이상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교단 통합을 교단 수뇌부가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

득이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비대위는 기존 교단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분열이 아닌 교단 탈퇴 및 재출발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총회를 구성했다. 총회이름도 ‘합동개혁’에서 새롭게 ‘합동개혁서울’로 이름도 변경했다.

총회는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김영신 목사가 질서위임 및 임시 서기를 임명한 후, 회원점명, 전 의회록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증경총회장 전종희 목사가 나서 새롭게 임원을 선출한 결과 김영신 목사가 총회원 만장일치로 신임 총회장에 올랐다.

김영신 총회장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이다. 새 포도주를 담아 낼 새 부대를 만드는 매우 거룩한 날이다”라며, “이제 우리 스스로 새로운 날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자. 아픔과 고통을 잊고 승리의 날을 맞는 총회가 되자”라고 독려했다.



성결대 제41회 총동문회 정기총회

회장 황성환 목사 등 41회기 임원선출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제41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7일(금) 오전 11시 성결대학교 아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신임원 선출과 함께 회무처리가 이뤄졌다.

이날 40회기 실무부회장 최종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서기 이규현 목사의 기도와 회계 유훈주 목사의 성경봉독 후 증경총동문회장 윤기순 목사가 ‘사도요한의 증거’(요 1:1-3)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예성총회, 성결대학교, 총동문회를 위해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40회기 회장 박광일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총



회장 김만수 목사와 성결대 김상식 총장의 축사, 사무총장 김성진 목사의 광고 후 증경총동문회장 김용구 목사가 축도 순서를 맡았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제41회기 총동문회

신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황성환 △부회장 요섭, 김계태, 김만수, 김성진, 김윤석, 배지현, 신선범, 이상화, 이정길, 전준우, 최상현, 최종화 △사무총장 이규현

실만한물가 제8호 출판감사예배

서동요 문학상 등 부문별 시상식도 가져

실만한물가작가회(대표 강순구·서비아 목사)는 지난 6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VIP홀에서 실만한물가 제8호 출판 감사예배 및 시상식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장병진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박대산 목사의 대표기도, 정상문 수

도국제대학원 문화대학원장의 시 95: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대표 서비아 목사와 강순구 목사의 환영사와 내빈소개, 정두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제2부 시상식은 이강철·심미옥 시인의

사회로 이미에 전도사의 위상에 이어 분야별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서동요 문학상’ 시 부문은 김수자, 수필 부문은 박희우, 동시 부문은 김화창님이 각각 받았으며, ‘여우당 문학상’ 시 부문은 전홍규, 시조 부문은 박대산, 수필 부문은 남궁영희님이 각각 받았다.

또한 ‘한술문학상’ 시 부문은 류한상, 시조 부문은 장병진, 평론부문은 김홍식님이 받았으며, 신인문학상에서 시 부문은 이봉옥·노영애·조숙현·심영희·이규현님이 각각 받았다. 어린이 문학상에는 박윤우 아동이, 선교대상 문화예술부문은 이명례, 선교부문은 박문우님이 각각 받았으며, 호명예국상은 정상문·노영애님이 각각 받았다.



장기기증, ‘제3회 심리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로 장기기증에 대한 자긍심 함양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5월 31일(금)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하 도너패밀리)의 심리 회복과 정서 지원을 위한 ‘제3회 도너패밀리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5월 9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지원 프로그램에는 배우자 사별자 뿐 아니라 자녀 사별, 형제자매 사별 등을 경험한 도너패밀리가 다수 참여해 진정한 치유를 위한 여정에 함께했다.

서울특별시 지원으로 지난해 7월 시작돼 올해 3회 차를 맞은 도너패밀리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본부와 CCC순상담센터가 공동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먼저 세상을 떠난 기증인을 향한 감정을 직면하고, 건강한 애도와 일상 회복을 돕는 ‘첫 만남’, ‘슬퍼해도 괜찮아’, ‘나를 받아줘’, ‘너의 부분들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도너패밀리가 품은 내면의 슬픔을 건어내는 데

에 도움을 준다.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너패밀리 김경옥 씨는 “남편의 빈자리가 아직도 크게 느껴지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남편의 생명나눔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며 “고귀한 사랑을 남긴 남편의 빈자리에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채우고 싶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뇌사 장기기증인故 이봉선 씨의 아내 김춘자 씨 역시 활동에 함께한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도너패밀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라며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흘러서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생명의 말씀



백영자 목사

- 교단 회계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부활 승전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던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마 24:30). 그 날 우리도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살전 4: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고전 4:5).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성령충만해야 합니다(4절).

성령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롬 8:13). 복음 전하려는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마 10:16).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오십니다(요 4:18).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

성령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립니다(고전 12:3). 성령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깊은 뜻도 깨닫지 못합니다(고전 2:10). 성령충만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롬 8:26).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요 14:26). 성령을 받은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성령받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고전 3:16-17).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자는 시동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술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성령받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7절).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

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마 24:36). 바울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나는 심고 아כל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니라”(고전 3:6).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세월을 아껴야 할 때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막 13:7-8)고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까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아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렘 5:16-17)고 하셨습니다. ‘세월을 아까라’는 ‘세월을 최대한 활용하라’, ‘모든 기회를 잡으라’입니다(갈 6:9-10).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차차 나중으로 미루어서도 안됩니다. 언젠가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거든 지금 당장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

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벧전 5:8-9).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고(약 4:14), 한낮의 그림자 같습니다(시 102:11).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건강하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셋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8절).

성령받으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요 1:12). 권세의 헬라어 <엑수시아>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눅 4:14). 내 속에 내적 소명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예언이 나옵니다. 눈에는 환상이 보이고 가슴에는 꿈이 생깁니다.

권능의 헬라어 <두나미스>는 ‘밖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성령을 받으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렘 20:9).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행 5:15-16). 성령에게 사로잡혀 바울과 베드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순교하였습니다. 칼춤 추던 망나니 앞에서 보았던 로마 안락이 바울에게는 땅 끝이었습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보았던 그 곳이 베드로에게는 땅 끝이었습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원봉을 국가 유공자로 모셔야 한다고 했었고, 공산주의자로 생을 마감한 홍범도를 국가 고급 장교를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흉상을 만들어 세우기도 했다.(4인의 흉상과 같이) 이런 편향된 정치적 제스처가 결국 호국영령(護國英靈)들을 계속 욕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천일몰이’를 위하여 호국영령들을 현충원에서 몰아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정부에서도 이런 시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6월 호국보훈의달이 되면 대단한 추모 행사와 송고한 뜻을 기린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호국보훈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서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하신 분들을 이런 저편으로 가르고, 이미 안정된 유해(遺骸)를 함부로 대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자기 몸을 바치겠다고 나서겠는가?

동정

성결미래목회자 장학금 운동본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전액장학금 운동’이 4년차를 맞아, 여타 신학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 ‘성결 미래 목회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대표단장 이기용 목사, 이하 성미목)’는 지난 5월 23일(목) 2024년 장학생 47기 수여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열고, 신대원 신임생 40명에게 전액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방송인 유재석 씨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에 국내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유재석 씨는 생리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여성청소년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 지원후원금 전달



배우 공명 씨가 국제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홍보대사로서 국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공명 씨는 지난 3월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증진 캠페인 동참을 계기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고, 5월 14일 월드비전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아동 치료비 지원 기부금 전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배우 이영애 씨가 쌍둥이 자녀와 함께 국내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5,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6월 10일(월) 밝혔다. 배우 이영애는 TV조선 특집방송 ‘나는 행복 희망플러스’를 통해 화귀질 환과 뇌 손상으로 병원 치료가 시급한 초은이와 하준이의 사연을 접하고, 두 아동을 위한 기부를 결심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백척간두에서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의 대대적인 전쟁 지원을 받아, 6.25남침 전쟁을 일으켰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비극적이고, 참담한 민족상잔의 전쟁이었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을 빼고, 가장 치열하고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한국군이 645,000명이 희생되었고, 미군도 172,800명이나 희생당했다. 미군 중에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도 전사하였다. 해병항공단장의 아들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중앙정보국 국장의 아들도 부상을 당했

고,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미국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갓 소위로 임관한 365명 가운데 110명이 희생당했다. 남의 나라에서 공산당에 의한 참략을 막기 위해서 수 많은 정춘들이 끼여 자기 몸을 바쳤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이렇듯 희생당하거나 호국으로 몸 바쳤던 분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그분들을 ‘천일 몰이’로 국립 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또 김구 선생의 손자라는 사람도 이번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이장(移葬) 법안을 입법 발의하여 개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천일’이니 ‘반일’이니 하면서 편을 가르고, 또 나라를 위기에서 목숨 바쳐 구한 분들까지, 그 사후(死後)에도 욕되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국립 현충원의 역사를 보면, 1953년 9월 29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裁可)로 서울 동작동에 ‘국립묘지’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국묘지령’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과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가 안장(安葬)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보 계통의 모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천일’로 분류된 분들이 총 예순 네 분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모두 파묘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는 지난 2020년 우여곡절 끝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전쟁의 영웅, 그 백선엽 장군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가보훈부는 군에 있을 때, 성전환 수술(남자에서 여자로)을 한 후, 여군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원하던 부사관을 군에서 전역 처분을 내렸는데, 그가 자기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를 순직 처리하여 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굳이 ‘천일’이라는 굴레로 현충원에서 파묘를 하려는 것은 옳은 것인가?

전 정권에서는 6.25전쟁의 원흉적인 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 화목케 하는 목회자

경기지방회 월례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는 지난 6월 16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진리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6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윤진철 목사의 기도, 재무 이동용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회계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임웅재 목사는 고후 5:16-17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과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한 회기동안 수고하신 전임 회장 김바울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패를 전달했다.

곧바로 정기월례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순복음진리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 탁구통한 선교사역 확장

제5회 탁구선교회 정기모임

설교

회장



임웅재 목사
전임 총회장



임기설 목사
탁구선교회

예하성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회장 임기설 목사)는 지난 6월 10일(월) 오전 11시 포천시 소흘읍 소재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제5회 탁구선교회 정기모임을 갖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탁구를 통한 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운동하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탁구선교회 회계 이반석 목사(청주아기배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문찬우 목사(예수선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 총회장 임웅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요삼 1:2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한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례별 기도회는 전임 부총회장 정영섭 목사의 인도로 교단과 나라와



민족복음화, WCC반대, 동성애 반대, 열방선교를 위해 주례별 기도를 인도하고 사회자의 광고, 임웅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순복음아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후 탁구장으로 이동하여 연습경기와 친선경기, 레슨

을 받는 시간을 갖고 모임을 마치면서 열심으로 경기하고 함께해준 회원들을 격려하고 선물을 나누며 제5회 탁구선교회 정기모임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날 회원들은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개혁자들의 신앙열정에 도전 받는 계기

충북지방회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6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35명의 목사와 사모들이 하나 여행을 통해 5년 동안 준비하고 지방회장님의 삼천만원 개인 후원과 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일천만원 후원을 비롯한 여러 교회의 후원을 힘입어 개인별 삼백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은혜롭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체코의 프라하에 도착한 첫날부터 안 후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오직 진실만을 보고, 진실만을 말하고 행동”했던 개혁자들의 신앙열정에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하를 지나 독일로 넘어간 회원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지 발자취를 따라가며 교황청의 잘못된 교지를 항거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막문을 쓰고, 보름스에서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확고한 기독교 진리를 살펴보고,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르크 산성도 방문했다.

이어 스위스로 넘어가 종교개혁가이자 교육자인 쾰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어 융프라우의 멋진 산을 다녀온 뒤에, 프랑스 영지인 몽블랑을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



갔다. 이탈리아의 몇몇 도시들을 거쳐서 로마 순교당한 세 분수 교회 및 초기 기독교인들에 도착한 회원들은 사도 바울이 구급되었던 천국의 계단 교회 내에 있는 감옥과 그가

롬 순례를 통해 뜨거운 신앙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 대성당을 비롯한 화려한 교회들이 관광지로 변한 타락한 유럽 교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겪을 미래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는 화려한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충만함으로 나가 복음전하며, 순수한 신앙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에덴교회 구봉숙 목사 임직감사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6월 10일(월) 오전 11시 진안군 마령면 소재지에 있는 에덴교회에서 구봉숙 전도사 목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희수 목사(익산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박성전 목사(나리전주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손석희 전도사의 특송,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행 20: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의 사회로 예식사 후 임직서약과 안수, 가운착의, 악수례와 공포, 임직증서 및 임직패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수식은



안수위원장 김상운 목사와 안수위원 최병진 목사, 이광호 목사, 김희수 목사가 참여해 임직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했다.

3부 식순에서는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 진리교회)의 권면과 김바울 목사(정음은혜

와진리교회)의 축사가 있었고,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지방회원들은 점심식사와 더불어 마령면 내 카페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안성은혜교회 이전예배, 새 각오로 복음화 헌신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6월 11일(화) 안성은혜교회(정세창 목사) 이전예배를 드리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북면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김진현 목사(비전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이성근 집사(명강교회)의 색소폰 연주 후에 지방회 전임회장 정석현 목사(명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장 24:-16 말씀을 본문으로 “7전8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하며 팔순이 다된 나이에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목회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귀한 성전을 예비해 주셨다”고 전하고 “예수님께서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눅 9:62)고 하셨는데, 지방회 회원 모두가 열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임”을 당부했다.

이어 지방회 회계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헌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삼은빛교회)와 지방회 부회장 서경오 목사(세운돌교회)의 축사 후에 김효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안성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인근 카페에서 6월 월례회 모임을 가진 후, 아로마 워터와 생선 등을 선물로 받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부활의 능력을 입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6월 10일(월) 다메섹교회(담임 이원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찬송 인도 후 이광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회계 표현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대표기도, 이원철 목사(다메섹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마 28:16-20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 영혼이 오늘날 부활하고 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나? 반문해 보며 요한복음 14:20 말씀처럼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부회장 임경영 목사(순복음하늘빛교회)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서기 이미경 목사(순복음

동방이빛교회)의 헌금 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벤엘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 점령과 안전도의를 마치고 다메섹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순복음진리교회 최재영 목사 임직감사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는 지난 6월 8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진리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최재영 전도사가 목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윤진철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이동욱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안재봉 목사의 설교, 헌금 김경순 목사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장 5:1-2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흠으로 창조하셨고, 흠의 특징은 정직함을 나타낸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며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2부 임직식은 안수위원장 안재봉 목



사와 안수위원 최은규 목사, 전하세 목사, 은금홍 목사, 김바울 목사가 안수했으며, 이후 지방회장 안재봉 목사는 최재영 전도사가 목사가 되었음을 공포했고, 목사임명장과 임직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권면과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와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축사를 통해 최재영 목사를 축복하며, 안재봉 목사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목회할 것을 권면했다. 이날 임직식

은 최재영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또한 임직을 받은 최재영 목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임 총회장 임웅재 목사, 전임 지방회장 정광호 목사, 전임 지방회장 임훈순 목사를 비롯해 많은 지방회 목사와 사모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부득불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기도해 함께 하시며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한 경기지방회 모든 회원들에게 회장 안재봉 목사가 대신하여 마음의 인사를 전했다.

박성은 목사 임직예배, 사명 감당 다짐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6월 1일(토) 오전 11시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389번길 50-4에 위치한 동부중앙교회(담임 박성은 전도사)에서 박성은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 전 변원식 목사(창조교회)의

마음을 여는 은혜롭고 성령충만한 찬양에 이어 시작된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진숙 목사(오병이어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서기 김영진 목사(하나님을경외하는 시온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김종화 형제의 특송,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진리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딤후전 1:12-1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첫째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 은사,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로 직분 맡은 자의 자격이 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 셋째로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넷째로 직분자가 받을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믿음의 담력,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임직식은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집례로 박성은 전도사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이어져 서약 및 안수위원 김덕영 목사(진리교회), 전임회장 임훈순 목사(성화교회), 지방회 부회장 방은혜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안수기도와 성의 착용 및 공포 후에 임직증서 및 임직패를 수여하고 동부중앙교회 담임 취임 공포가 있었다.

이어서 방은혜 목사의 축사와 임훈순 목사의 권면, 지방회 회계 김종숙 목사(회복교회)의 헌금기도, 정성기 집사의 헌금특송, 김



덕영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동부중앙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2024년 현충일 논평

나라를 지킨 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국민 되자

6월 6일 현충일은 민족과 국가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국가 기념의 날이다. 이들 선조와 열사들이 피와 목숨을 바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선진국의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로 치닫는 과정에서 개인의 안일과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애국의 정신으로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존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 그분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표현해야 한다. 2024년 현충일을 지내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그리고 6.25 한국전쟁(1950-1953), 6.29 제2연평해전(2002) 천안함 폭침(2010)등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살름나베는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신 고귀한 순국자들의 정신을 기억하자.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하여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보존되어야 한다. 외세의 침범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애국 선열들이 있다. 나라 방어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개인이 생명을 바쳐 희생한다는 것은 최고의 애국이다. 이와 같이 젊음과 미래의 성공을 뒤로 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순국의 길을 걷은 분들의 애국의 실천 정신을 고귀하게 기리면서 후손들은 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3.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르치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국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길들여져 있다. 물론 사람들이 국가보다 자신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자. 전후 세대들은 6.25 전쟁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하여 현충일을 의미 있는 날로 지키는 실천을 하자.

5. 전쟁에서 순국하여 아직도 산하에 잠들어 있는 장병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기리자.

6.25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 물론 군 차원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화가 진행될 때는 휴전선에서 유해 공동발굴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그러한 작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찾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 금년에는 더 많은 유해 발굴로 보훈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게 되기를 소망한다.

6. 국가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미국 병사들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대통령은 먼저 비행장에서 맞이한다. 미국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세계에서도 극진하다. 미국 장병들은 미국 내에서도 시민들의 예우를 받는다. 이들의 교육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전도 그리고 선교사역은 건강한 나라가 유지가 될 때 힘을 얻는다. 한국교회는 신앙교육과 애국교육을 같이 하자. 당대와 다음 세대에 자유 평화가 이어지는 축복의 나라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희생이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서 30만 명 이상이 전사하였고 실종, 부상 등 많은 국가적 아픔이 있었다. 유족들과 그 후손들은 순국의 아픔을 한 순간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희생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아픔을 담고 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희생당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물려주자.

2.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이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고귀하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셨다. 절대 복종의 마음,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의 본을 실천하신 절대 사랑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자체를 망각해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은 전쟁의 아픔과 함께 나라의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책무를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4. 모든 국민들은 해마다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유공자 묘소를 방문하여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억하자.

현재의 대한민국의 평화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다. 문맹이었지만 지혜로웠던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의 내일을 위해 땀 흘려 농사를 짓고, 땅과 소를 팔아 교육을 시켰다. 이처럼 조상들의 희생이 녹아져서 지금의 국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정신이 애국정신으로 이어져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일의 꿈을 향하여 달려왔다. 오늘날 대한민국 여권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자. 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을 존중하자. 그리고 전국 각처에 있는 국가유공자가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를 방문

및 생활보장도 잘 되어 있다. 이것이 미국이 다인종 국가임에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나가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미국사회는 병사들, 경찰이나 소방관들이나 공무원들은 자신이 희생한 후에도 국가가 자신과 유족들을 잘 보상해준다는 신뢰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최근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 바 있다. 부서의 격상과 아울러 유공자들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제도적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6.25 전쟁, 6.29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순직 용사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 국가는 이들의 순국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장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7. 공산 독재 체제 아래서 기본적 인권을 말살당하고 살고 있는 북한 동포의 자유, 지구촌의 화약고 이스라엘 가자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79년째 공산 독재 체제 아래서 기본적 인권을 말살당하고 살고 있다. 북한 공산군들이 남침한 6.25 전쟁은 남침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문명이 최고조에 이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 106명 아이들 완주

페플라스틱, 낚은 어망 등 수거하며 70km 걸어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6월 6일(목) 제6회 꿈꾸는아이들 올레! 국토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은 월드비전 꿈지원사업 꿈꾸는아이들의 일환으로, 아이들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과정에서 꿈을 향한 도전 의식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6일 제주 평생학습관 운동장에서 마련된 해단식에는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이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 격려와 함께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국토대장정에 올랐던 106명의 참여학생들은 함께 그을린 얼굴로 모두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합성과 함께 쓰고 있던 모자를 하늘 위로 던지며 해단 신고를 마쳤다.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총 106명의 월드비전 꿈지원사업 참여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 70km를 완주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환경을 날'을 맞아 페플라스틱·낚은 어망·비닐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해변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해양 쓰레기로 정크아트 등의 퍼포먼스를 하는 등 제주도의 해변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최강희 월드비전 홍보대사도 이번 국토대장정에 동참해 2박3일간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직접 응원하고 격려했다. 월

드비전 후원자들은 국토대장정 코스 중 간식차를 선물해 학생들의 완주를 응원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는 월드비전 후원자들은 직접 해단식에 참석해 국토대장정 완주를 축하했다.

‘올레! 국토대장정’의 해단식에서 홍유라 학생은 “아간행군때 발에 물집이 잡혀 포기하고 싶었지만, 함께 걸었던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참고 완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꿈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면 이번 국토대장정을 떠올릴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본부장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다치거나 아픈 인원 없이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돋보였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이들이 어떠한 환경과 위기에 놓여 있던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원하는 꿈과 진로를 찾아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대장정을 위해 여러 기업이 물품을 후원하며 동참했다. 메인 후원기업인 노스페이스에서 참여 아동을 위한 212장의 기능성 티셔츠와 106장의 바람막이를 지원했으며, 우무에서 텀블러 및 선에센스 각 200개, 테리타운에서 불캣모자 150개, 야다에서 선스틱 200개, 도미노피자에서 피자 60판, 제주삼다수 2L 무라벨 생수 1152병, 닥터노아 칫솔치약 여행용세트 200개, 농심켈로그에서 에너지바 2016개, 제주에풍당 캐릭터 부채 및 볼펜 각 200개를 각각 제공했다.



는 21세기 지구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지역에서 지금도 무고한 주민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인명과 물적 피해, 가정의 파괴, 그리고 전쟁고아 등 아픔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휴전이 되어 더 이상 선량한 백성들의 생명이 헛되어 죽어가는 사태를 종결하자. 전쟁을 주도하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상대국의 국민들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평화의 그날이 속히 도래하여 생방이 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도록 힘써 기도하자.

8.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애국의 정신을 가르치고 생명을 존중하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3.1 독립운동시에 감리교 목회자 신석구 목사는 기독교 신앙은 선조들이 물려준 나라의 독립을 얻는데 헌

신하는 것이라 말했다. 6.25 전쟁시에는 신앙과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쳤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전도 그리고 선교사역은 건강한 나라가 유지가 될 때 힘을 얻는다. 한국교회는 신앙교육과 애국교육을 같이 하자. 당대와 다음 세대에 자유 평화가 이어지는 축복의 나라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다시는 전쟁과 국가적인 재난이 없도록 국민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 실천하자.

2024년 6월 3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홈페이지 : www.ucts.org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2024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유효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한국해비타트 ‘2024 6.6 걷기대회’

기부금 3억1600만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가수 선과 함께한 ‘2024 6.6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3억16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6월 6일(목) 서울 남산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거취약 국가유공자들이 안락한 보금자리에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선이 주최했으며, 서울시가 행사 장소를 후원했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걸음 기부 애플리케이션 ‘빅워크’를 통해 목표 걸음수인 7억2700만 보(정전협정일 7월 27일)를 달성하며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여기에 개인 참가비 전액이 더해져 총 3억1600만 원이 모였고, 이 후원금은 전액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사

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가수 선 캠페인 홍보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기 유튜브 ‘천재이승국’의 사회로 시작했다. 특히 최은석 참전용사(6.25 참전자회 송파구지회장)는 “현충일에 참전용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깜짝 게스트로 등장한 가수 인순이가 특별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나리를 위해 숨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수 선, 참가자 1500명은 남산공원에서 6.6km를 함께 걸으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5년 만에 도너패밀리 야유회 재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과 함께 춘천 찾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5월 28일(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야유회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야유회는 5년만에 재개되어 30여 명의 도너패밀리가 강원도 춘천으로 떠났다.

이날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 치녀상’을 방문한 도너패밀리들은 아름다운 소양강의 절경을 바라보며 기증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오랜만에 야유회에 참여한 뇌사 장기기증인故 양진영 씨의 어머니 김선희 씨는 “지난 5월 15일이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니 아들 생각이 더 많이 난다”며 “생명나눔이라는 고귀한 경험을 공유한 도너패밀리들과 함께하는 이번 여행이 마치 아들이 보내준 선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으로 야유회에 참여한 뇌사 장기기증인故 조인출 씨의 아내 김경옥 씨 또한 따뜻한 소회를 전했다. 김 씨는 “아름다운 소양강을 바라보니,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 울컥하기도 했



다”며 “도너패밀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남편의 빈자리가 슬픔이 아닌 생명나눔의 자긍심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소양강에 이어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광장’을 찾은 도너패밀리들의 손에 들린 형형색색의 피켓

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증인에게는 감사함을, 이식대기자에게는 희망을!”, “Remember your love”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도너패밀리들은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구호를 외치며 광장 일대를 행진했다.

라이프호프 자살유가족 인식개선 위한 순회포럼 열린다

전북 경기 부산 서울 대전까지 주제특강과 토크콘서트로 꾸며져

사)생명문화Lifehope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6월 13일(목)부터 자살유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순회포럼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을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인식개선 주제특강과 문화공연을 비롯해 자살유가족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로 구성되며, 자살유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원시스템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될 예정이다.

순회포럼 1차 전북편은 6월 13일 오후 2시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렸으며 자살유가족 전국모임인 미안하다고말다사랑한다(이하 미고사) 운영진이기도 한 세이브유상담센터 심소영 소장이 주제특강을 진행하고, 미고사운영진 강명수 박사와 김정호 임상심리사 외 전북지역 유가족 1인이 대담자로 나선다.

순회포럼 2차 경기편은 6월 25일(화)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의 특강으로 시작한다.

3차 부산편은 7월 15일(월) 수영로교회에서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의 특강과 문화공연이 진행되며 유가족 대담도 이어진다.

4차 서울편은 7월 20일(토)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나종호 교수와 미고사 운영진이 함께한다. 특별히 서울편은 미고사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며, 자살유가족운동이 당사자운동으로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 여인석 교수 제7회 알렌기념상 수상

의료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업적 조명해

알렌, 에비슨 등 의료선교사들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학문적으로 규명해 온 여인석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남대문교회가 제정한 ‘제7회 알렌기념상’을 수상했다.

여인석 교수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임상의학이 아닌 인문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학의 역사(歷史)’를 교육한다. 그는 한국 근대의학사(史)와 선교의료사(史)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알렌, 에비슨 등 의료선교사들의 활동과 이들이 펼친 기독교 의료가 한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공헌을 학문적으로 밝혀왔다.

여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조선 정부와 선교부의 합작 병원인 제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면서 “조선 정부는 개항 이후 개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교부는 당시 조선에서 공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이나 의료를 통해 전파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초기 선교사들은 근대의학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6월의 녹음은 깊어가는데

6월의 녹음은 깊어가는데 동작동 어느 병사의 묘비에 새겨진 그날의 흔적은 빛바랜 푸른 꿈 초연이 되었네.

아 눈물도 매마른 6월의 참상이여,
잊지 못할 화신이어라.
그대여 지난 세월의 아픔이어라.
전쟁의 화신이어 그대 그릇된 선택을 해산함이어
그대있어 악의 갈증을 드러냈던가.

그러나 어둠에도 시기가 있었고
희망에는 사랑의 빛이 있음을 배웠노라.
오 주여, 복된 땅 동포들을 기억하소서.
영혼 없는 수레는 도살할 바퀴를 굴려
참혹한 피바다를 이루었네.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통일이 되면
북녘 땅에 가서 복음전하다 순교한다는
전도자의 사명이 투철하다.

아 구슬픈 소쩍새야 피를 토하라.
슬픔이어 고통의 밤이어라.
저 멀리 지나는 밤 깊은 숲속 어디선가 두런새 밤새 소리
간간히 들리는데.

아 잠들길 없는 구도자의 무너진 가슴은 이 밤도 달랠길
없어라.

오 주여, 이 땅을 보존하소서.
오 주여, 흐르는 구름처럼 손을 쏘소서.
오주여, 매가 닭재 듯 하게 마소서.
이 땅은 복음의 전당 그리스도의 성지라.
아 흐르는 보혈이어 한강의 기적 밀거름 되여
자유대한민국 오늘을 꽃피웠다.
구국의 전사들이여 자신을 열라.
구국의 작은 예레미야여 죄를 저항하라 불의를 저항하라.

앞서간 순국 열사들의 행군이여
자유대한민국 남녀노소여 우리 모두 잊지 말자.
자유대한민국이어 서로 손을 잡고 힘차게 행군하자.
우리 모두 서로 섬기며 불타는 가슴의 애국
서로의 부족함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나아가자.
죄로 어두운 이 시국 함께 깨우자.

자유여, 자유대한민국이어,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이어 영원하라.
영원하라!!

가족세트전도사무총장 이수 교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5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4.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4. 9. 5(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4. 9. 30(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4. 8. 23(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5. 2. 3(월)~4(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이전 출생자로 한다.
-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영준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별들 저 너머에 사는 사람들



로마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지하로 내몰았습니다. 그 박해가 고단하고 힘든 정도를 넘어서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신앙인들은 하루아침에 귀족도 천민으로 전락하고 박해자들의 혐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버려진 건물이나 동굴이나 묘지에 모여 몰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발각된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카타콤에 남아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유골과 카타콤들의 벽에 새겨진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비명들로 입증됩니다. 어떤 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지 않았다. 그는 별들 저 너머에 살고 있다’ 순교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별들 저 너머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동로마 황제 발렌스의 장관들이 대 바실리우스(Basilus the Great)에게서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요? 그 정도로는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소. 나는 처음부터 재산이 없으니 버릴 것도 없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산적이 없는데다가 온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나그네니 추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순교란 내게 과분한 것이요. 하지만 죽는다면 내게 유익이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며 살고 있는데, 죽는다면 더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니 말이오. 게다가 나는 이미 거의 죽은 몸과 다름이 없으니 오래 전부터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소.”

소련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신앙인들은 추위가 더 좋았습니다. 매우 추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더 추운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추운 날은 박해자들이 공산당원들이 추위로 인하여 신앙인들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례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깊은 산속으로 눈과 얼음을 헤치고 모여온 이들 중에서 이 때에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은 카타콤 순교자들처럼 별들 저 너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신앙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신앙의 사람들이 위험할 때는 박해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때입니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잘되어 갈 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만족한 삶을 자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영혼은 시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별들 저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의 세월이며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고백하며 즐겁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후 5:1)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양상한 가지를 드러낸 산이 지나고
작은 언덕의 집들이 지나고
예쁜 교회당이 지나갑니다.
답답한 방음벽을 지나고
주황색 터널을 지나고
사철 푸른 소나무 길을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나를 만들며 지나고
보혈의 강물은 나를 덮고 지나며
지나온 순간들이 내게는 은혜라고 말해줍니다.
주께서 다듬어 오신 세월
가만히 들여다보니
감사의 오늘이 또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은 기쁨의 일이 생기고
어느 날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느 날은 덤덤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 지나고
꽃이 피고 지며 비가오고 눈이 오더니
한 번 지나면 그만이 인생의 황혼기가 지나갑니다.

차 옆자리에 앉아 스치는 풍경을 본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에 감사할 뿐이다.

사 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때로는 진리가 되기도 한다. 괜히 나서서 아는 체 했다가 역풍을 맞거나 비난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은 게 인간사이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엔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사사건건 현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더니 급기야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날 자서전을 발간하고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전직 문재인 대통령. 현직일 때도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않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을 해서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더니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자서전의 내용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혀 의외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온 나라가 북새통이다.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잠시 들춰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발 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 어려운 시절에도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연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 부분을 자신이 직접 넣었다고 자랑했다. 그가 북한이란 감옥에 주민들이 갇혀 최악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통령으로 죄악이며,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사악한 것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30년 되는 해이다. 1995~1996년부터라는 얘기가 많지만 1994년 봄에 갑자기 배급이 끊어졌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인류사에 기록될 대가근이었다는 뜻이다. 그 여파로 주민 대탈주와 세계사에 찾기 힘든 북한 여성 집단 인신매매가 벌어졌다. 민족 최대의 참화와 수치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스탈린 시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다룬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북한의 대량 아사와 닮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북한과 닮았다. 제나라 국민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 모스크바에서는 매일 파티가 벌어진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산당은 국민 살리기가 아니라 정보 통제, 보도 통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에서도 정보 통제로 평양 사람들조차 기근 실태를 몰랐다고 한다.

부모가 굶어 죽은 아이들은 집단 수용됐는데 결국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 탈출하면 꽃제비가 된다. 꽃제비들은 토굴을 파고 모여 산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은 ‘꽃제비 때 예쁜 여자아이와 마음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내 무릎을 베고 눕더니 오빠 졸려 라고 하더니 죽었다’고 했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먹은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상한 것, 모든 풀, 모든 옥수수 껍질, 모든 뿌리를 먹었다는 것이다. 잠시 허기를 면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이다. 지독한 변비로 고통당할 때는 나무로 변을 긁어냈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북한 전 지역, 전 계층에서 각자도생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군인들은 총든 강도가 되고, 보위원과 경찰은 칼 든 강도가 되고 주민들은 장사에 나서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한 것이다.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이들은 중국에 도착하면 나이, 용모에 따라 값이 매겨져 중국 농촌, 산골로 팔려갔다. 이들이 당한 폭행과 비참한 삶은 듣기도 힘든 일이다.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은 총분히 살렸을 돈으로 평양에 1인용 최고급 대리석 거대 김일성, 김정일 묘지를 만들고, 수십만 명을 더 살렸을 돈으로 핵폭탄을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자서전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겁다고? 최근 탈북한 한 모 씨의 사연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어린 아들과 둘이 두만강을 넘었는데 중국 공안에 붙잡히고 말았다. 복송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갖고 있던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잘랐다. 피가 솟구쳤다. 아들이 이를 보고 ‘아빠 나도요’ 하고 손목을 내밀었다. 아들 손목을 잘랐다. 피가 솟구쳤다. 지구상의 어느 누가 이들이 심정을 알 수 있을까?

놀란 공안이 이들을 놓아줘 두 사람은 탈북에 성공했다. 자서전에서 말한대로 문 전 대통령은 이들 부자 앞에서 ‘북한 발전’, ‘뜨거운 가슴’, ‘민족 자존심’, ‘불굴의 용기’ 같은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 찢아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만 들었는데, 자기 입에 붙은 일이라고 막말을 해도 되는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벧후 2:15,16)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관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5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2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영 준
총 무 목사 오 세 준